

담양군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신청 가능

전남군 단위 최초 등록기관 지정

앞으로 담양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보건소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보건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광주시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전남대학교병원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 보건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26일 전남 군 단위 최초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최근 무미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청년농업인 정착 등 지원



4-H운동 활성화

화순군이 지역의 미래 농업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해 학습단체인 4-H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H운동은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청년 교육 운동이다.

화순에서는 화순군 4-H연합회(회

장 김민영)가 4-H운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 4-H연합회는 학교4-H회(4개교 68명), 영농4-H회(64명), 4-H본부(18명) 등 6 개회 회원 150명을 구성했다.

학교4-H회는 4-H 기본교육과 전연연세 체험, 과수 가꾸기, 국화 기르기 등 다양한 과제 활동과 도 단위 과제 발표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영농4-H회는 과제학

습과 현장 견학을 통해 선진 영농기술을 배우고 역량을 키우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남 청년4-H 경진대회 참석해 드론 활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예산 1억2500만 원을 들여 4-H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과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다.

청년4-H회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을 통해 좋은 조사료 생산과 한우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료 수확기 구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경영 효율화를 위한 GPS 이랑기 보급(2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 3명을 선발해 농업 선진국의 성공 사례와 기술을 배우는 국외연수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과제학습포(도곡면 죽정리 일대 1만㎡)를 운영해 농업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도록 힘쓰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함평군, 귀농·귀촌인-지역주민 간 융화 교육 실시



함평군은 지난 26일 엑스포공원 금호아시아나관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융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

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 정영환 씨가 강사로 나서 상호이해와 배려, 소통에 대해 집중 조명했으며, 참석한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인 200여 명 역시 큰 호응으로 화답했다.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군은 현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 귀농·귀촌을 주목,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 화합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호응

영광군의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래 들어 사람들이 점차 좌식문화의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젊은 세대는 물론 어르신들도 입식을 찾으면서 많은 음식점들이 좌식문화에서 입식문화로 변화해 가는 추세이

다.

이에 영광군은 음식점의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5천 8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심의를 거친 후 일반음식점 23개소를 선정해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들의 음식점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양사와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반응이 좋기에 따라 내년 사업에 반영해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전남대, 농촌활력 증진 상생협약



장성군이 지난 26일 지속가능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이하 농생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청 상형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 전남대 농생대 안기완 학장을 비롯한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성군과 전남대 농생대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대 농생대는 체계적인 농업정책 발전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장성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으며, 장성군은 전남대

의 우수한 인재들이 군의 미래 먹거리인 황룡강,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 수 있도록 돕는다.

유두석 군수는 "전남대학교가 보유한 선진 농축산기술과 훌륭한 인재들이 장성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서로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앞으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나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기완 학장은 "오늘 협약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군은 '미래 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부지농촌 건설이라는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귀농인을 유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푸드플랜 구축사업' 등 굵직한 농업정책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장흥한우 사육에 효율적 비육기술 도입한다

장흥한우육불합산업협업단(단장 김성호)은 최근 '2019 장흥한우 사양 기술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우사육 단계별

로 총 5회에 걸쳐 구성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1회차 교육에는 한우 번식에 가장 중요한 인공수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2회차에는 한우 질병 예방과 치료, 3회차인 이번에는 한우 비육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비육기술 교육이 정부의 바깥 한우고기 등급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장남진 장흥한우의 위상을 지킴은 물론 한우농가들의 비육기술 향상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주시, 내달부터 나주시랑상품권 '8%' 파격 할인

올해 2회 걸쳐 할인율 ↑

나주시가 지역 상권 수호를 위해 발행하는 나주시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8%'로 대폭 올린다.

시는 당초 2%였던 상품권 할인율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5%로 늘린데 이어, 6월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나주시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8%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2회에 걸친 파격적인 상품권 할인

율 인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는 물론, 특히 지역 소비자급의 역의 유출방지에 따른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들어 상품권 이용 활성화 위해 가맹점 1010개소 스티커 전면 교체하고 가맹점 305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시정을 비롯한 읍·면·동, 판매대행점 등 60개소에 홍보 배너와 플래카드, 리플렛 등을 설치·배부하는 등 상품권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관·단체와 가맹점 가입대상 업체 4246개소에 협조 공문을 일괄 발송, 상품권 이용 생활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발행해 온 나주시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총 237억 5000만원어치가 발행되고 약 207억 원이 판매 유통되는 등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했다.

7월 현재 상품권 판매액은 18억 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6.8%의 판매율을 보이며 순항 중에 있다.

